

(주소) 11027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번길 2 (전화) 031-830-5621

배포일	2025.11.9.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도일	2025.11.10.				
AI와 구석기, 기술과 예술이 만났다, 〈AI 로봇오페라 프리뷰〉 성료, 12월 중 프리오프닝 예정	1	4	www.jgpm.ggcf.kr	부서 : 전곡선사박물관 담당 : 이충림 전화 : 031-830-5621	

AI와 구석기, 기술과 예술이 만났다, 〈AI 로봇오페라 프리뷰〉 성료, 12월 중 프리오프닝 예정

- ▶ 권병준 작가의 AI 로봇오페라 프리뷰 퍼포먼스, 11월 6일 전곡선사박물관에서 펼쳐져
- ▶ 경기문화재단·전곡선사박물관·백남준아트센터 협력으로 기술과 예술의 새로운 지평 열어
- ▶ 12월 11일 프리오프닝 진행 예정, 본 공연 2026년 1월 28일과 29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개최



▲권병준 작가가 프리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관장 이한용)은 지난 11월 6일(목) 전곡선사박물관에서 개최한 〈2025 경기 컬쳐 로드 AI 로봇오페라 프리뷰(Preview)〉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 백남준 서거 20주기를 앞두고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AI 로봇 오페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문화재단과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이 협력해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축사로 인사를 전했으며,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와 국립박물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현장에는 예술계·학계 인사와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프리뷰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 권병준 작가의 로봇 퍼포먼스 〈아해와 나엘〉과 작품 제작 과정을 담은 메이킹 영상이 함께 공개됐다. 인공지능(AI)과 협업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완성작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선보인 이번 무대는,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탐구하며 AI가 예술의 창작 파트너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관객들은 “로봇과 예술의 만남을 생생하게 체감했다”, “몰입도 높은 퍼포먼스였다”고 평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구석기 시대의 주먹도끼를 연구하는 기관인 전곡선사박물관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은, 인류 최초의 기술과 현대의 기술이 만나는 상징적인 순간으로도 주목받았다.

공연 후 이어진 아트토크에서는 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이사, 전곡선사박물관 이한용 관장, 백남준아트센터 박남희 관장이 참여해 권병준 작가와 함께 ‘예술과 고고학, 문화 안에서의 기술과 인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AI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과 ‘예술과 기술의 공존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가 오갔다.

AI 로봇오페라 프리뷰는 1964년 백남준이 선보인 〈로봇오페라(Robot Opera)〉의 실험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프로젝트로, 2026년 백남준 서거 20주기 《AI 로봇오페라》 본 공연의 서막에 해당한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시범 행사를 통해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기술예술 실험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12월 11일 프리오프닝 행사를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며, 본 공연은 2026년 1월 28일과 29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 전곡선사박물관 031-830-5621, 경기문화재단 정책실 031-231-7255)